

쉬운 우리말을 쓰자



| 2023년 겨울 통권 5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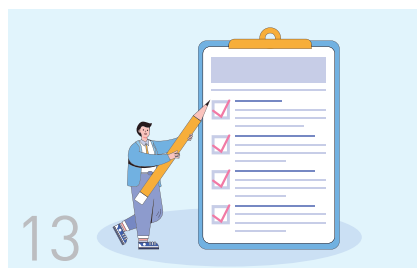
공문서에서 어떻게
로마자 사용을 줄일 수 있을까?

외국어 남용에 불편했던 이야기
공모전 입상 수기와 영상

쉬운 우리말로 바꿔 쓰기
'아웃바운드' 대신 '국외여행'

쉬운 우리말 사전

2022년에 새로 다듬은 말
2022년에 꼭 바꿔 써야 할 말 50개
연재만화



쉬운 우리말을 쓰자

퍼낸날 2022.12.31.
발행인 이건범

기획 한글문화연대 편집 김영진 나서영 디자인 푸른나무디자인(주)

퍼낸곳 사단법인 한글문화연대

ISSN 2951-0112 (24)

© 2021, 한글문화연대

시작하는 말

별다줄 시대, 소통과 줄임말 – 이건범

03

생각 더하기 ❶

[알기 쉬운 우리 새말]

여행 규칙 아닌 '트래블 룰' – 김정희

04

생각 더하기 ❷

옴부즈맨? 부쉬맨? – 최보기

07

생각 더하기 ❸

이해하기 어려운 표지판 – 양다연

10

쉬운 공문서 쓰기

공문서에서 어떻게 로마자 사용을 줄일 수 있을까?

13

공모전 입상작

언어, 정책 지원의 진정한 시작 – 으뜸상 김경준

18

벽을 넘어서 – 버금상 김보미

22

할아버지의 하루 – 버금상 고프로

27

만화

무인 주문기의 악몽

28

사례 나누기

'아웃바운드' 대신 '국외여행' – 김태경

34

영상으로 보는 쉬운 우리말

38

이렇게 바꿨습니다

40

'쉬운 우리말 검색' 활용하기

42

2022년에 새로 다듬은 말

44

2022년에 꼭 바꿔 써야 할 말 50개

48

국립국어원 및 전국 국어문화원 연락처

50

책 소개

51

별다줄 시대, 소통과 줄임말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대표

‘밀당, 꿀잼, 심쿵, 빼박’처럼 젊은이들이 줄여 만든 신조어들이 많습니다. 이런 생활언어만이 아니라 언론 보도에서 사용하는 사회정치 용어에서도 ‘떡튀, 주담대, 윤희관, 검수완박’ 등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줄임말들이 튀어나옵니다. ‘별 걸 다 줄인다’고 해서 ‘별다줄’이라는 말이 나오는 세상이니, 우리는 분명 줄임말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줄임말은 과연 나쁘기만 할까요? 재미로, 또는 집단 의식을 키우기 위해 줄임말을 은어처럼 사용하는 경우도 많지만, 대체로 시간과 공간의 부족으로 긴 말이 걸리적거릴 때 불가피하게 생기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공식 이름은 대한민국이지만 한국이라고 줄여 부르고, ‘전경련, 민주노총, 기재부’ 등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기성세대와 언론에서 줄여 부르는 용어가 매우 많습니다. 사람들은 늘 시간에 쫓기니까요. 무조건 젊은 세대만 비난할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말을 줄여서 경제성을 얻는다 해도 의미의 투명성을 날려버려서는 안 된다는 점이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말 줄임은 줄이지 않은 말을 서너 번 들으면 어느 정도 기억이 남으니 문장 이해에 엄청난 장벽은 아닙니다. ‘추가경정예산’만 해도 가장 중요한 ‘예산’의 요소가 들어 있지 않은 줄임말 ‘추경’만으로 뜻이 통하니까요. 반면에 외국어 약어와 외국기관, 국제협정 등의 약칭은 그 원이름을 몇 번씩 듣더라도 제대로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ODA, NFT, OTT’ 등의 줄임말과 ‘IPEF, CPTPP, FOMC’ 등의 줄임이름이 대표적입니다.

이 가운데, 미국의 통화·금리 정책을 결정하거나 공개 시장 운영의 방침을 결정하는 일을 맡아보는 기구인 ‘FOMC’는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의 약칭으로서, 우리말로로는 ‘미 연방 공개시장위원회’라고 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FED’의 우리말 이름인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를 ‘미 연준’으로 줄여 부르듯이 ‘FOMC’도 ‘미 연시’로 줄여 부르면 어떨까요? 아무렇게나 줄여 부르기에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언론인과 국어학자, 관련 공무원들이 함께 국제기구 등의 로마자 약칭을 우리말 줄임이름으로 바꾸어 제안해주면 좋겠습니다. 장벽이 있다면 넘어갈 길도 있을 테니, 함께 고민해 보시길요. 새해엔 소통의 길이 더 넓게 열리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12월

[알기 쉬운 우리 새말]

여행 규칙 아닌 ‘트래블 룰’



김정희
한글문화연대 기획위원

외국어로 된 신조어를 문장 속에서가 아니라 앞뒤 맥락 없이 만났을 때 종종 그 뜻을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트래블 룰’(travel rule)이 바로 그랬다. 고백하건대 처음 이 용어를 접했을 때 당연히 여행 용어인 줄 알았다. 코로나 대유행 이후 외국 여행에 제약이 많아지면서 생겨난 규약이나 제도라고 짐작한 것이다. 그런데 아뿔싸, 금융 용어였다.

‘트래블 룰’의 뜻은 “온라인에서 가상자산이나 자금을 주고받을 때 자금 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주고받는 사람의 정보를 기록하게 하는 원칙”이라고 한다. 그런데 자산의 이동에 대한 제도를 일컫는 말에 ‘유통’, ‘거래’, ‘자금이동’ 등의 용어를 쓰지 않고 하필 ‘여행’이라는 말을 써서 헛갈리게 했을까. 이는 이 용어가 미국에서 ‘직수입’됐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다.

‘트래블 룰’이란 말이 우리 사회에서 자주 들리게 된 것은 최근이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존재한 용어다. 미국에서는 1970년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은행 보안법’(혹은 은행 비밀유지법(BSA·Bank Secrecy Act))을 만들었고, 1996년 자금이 이동한 정보를 기록으로 남기는 규제를 강화해 이 법안에 추가했으니 이것이 ‘일명’ 트래블 룰이다. ‘일명’에 작은따옴표를 넣은 것은 정식 법규 명칭이 아니라 미국에서 역시 별칭으로 불

❧ 외국어로 된 신조어를 문장 속에서가 아니라
앞뒤 맥락 없이 만났을 때 종종 그 뜻을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

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오래전부터 존재한 용어가 우리 언론에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2019년 6월 이후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가 이 법규의 대상에 암호화폐, 즉 가상자산을 추가하면서다. 그러다 올 3월 25일 국내에서도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에 이 규칙을 적용하면서 국내에서의 용어 사용이 붓물 터지듯 늘어났다. 미국에서 30년 가까이 실시돼 온 제도가 가상화폐로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국내까지 도입되면서 제도와 함께 그 별칭까지 따라 들어온 것이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무래도 길들지 않은 표현이다. 우리 언어문화에서는 돈의 이동을 '여행'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게다가 '무엇'이 여행한다는 것인지, 규칙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도 이 용어만을 놓고 보면 파악하기 어렵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도 이를 잘 보여 준다. 2000명의 응답자 중 92%가 넘는 이들이 '트래블 룰'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 보았거나, 들어 본 적은 있으나 예상했던 것과 다른 뜻이었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이 용어를 우리말로 어떻게 고치면 원래 이 제도가 가진 뜻을 바로 이해할 수 있을까. 그간 우리 언론에서 트래블 룰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함께 쓴 우리말 표현을 훑어 보자. '자금이동 규칙', '전신 송금의 원칙', '전신 송금 시 정보 제공', '자금 추적 규제' 등이 있다. '코인 (금융) 실명제'라는 별명을 붙인 경우도 있지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무래도 길들지 않은 표현이다.
우리 언어문화에서는 돈의 이동을 ‘여행’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만, 원래 이 제도가 가상자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 자산 일반에 적용됐던 것임에 비춰 볼 때 적절한 표현은 아니다.

새말 모임에서는 기존에 쓰여 온 여러 표현을 바탕으로 ‘송금 정보 기록제’라는 새말을 다듬었다. 즉 이 용어가 ‘돈의 흐름(송금)’에 관한 제도이며, 그중에서도 ‘정보 기록을 통한 투명성 확보’를 목표로 했다는 점을 명확하게 드러내 주었다. ‘트래블 룰’(말 그대로 보자면 여행 혹은 이동 규칙)이라는 은유적 표현과 달리 더이상 군더더기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분명하게 그 뜻이 전달되는 용어다.

아쉬운 점은 이렇게 일곱 글자로 명료하게 뜻을 전달할 우리말 표현을 제시할 수 있는데도 제도 시행 때 이 기회를 놓쳤다는 사실이다. 올해 3월 금융위원회는 이 제도의 시행을 놓고 “가상자산의 이전과 함께 송수신인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트래블 룰)가 본격 시행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미리 우리말을 다듬어 두었다가 공식적 제도 이름으로 발표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앞으로 이렇게 외국의 기존 제도를 들여와 국내에서 시행할 때는 여러 관련 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적절한 우리말 용어를 마련해 제도 시행을 발표할 때부터 분명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면 하는 바람이다.

※ ‘새말모임’이란 어려운 외래 새말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지기 전에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다듬어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국어, 언론, 통번역, 문학, 정보통신, 보건 등 여러 분야 사람들로 구성된 위원회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모임을 꾸리고 있다.

옴부즈맨? 부쉬맨?



최보기
작가, 서평가

‘옴부즈만’이라고도 하고 ‘옴부즈맨’이라고도 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오래 전에 영화로 알려졌던 ‘부쉬맨’이란 단어가 연상이 됩니다. 서구 문물과 담쌓은 아프리카 부족에게 비행기 조종사가 공중에서 버린 콜라병이 떨어지자 신이 보낸 물건으로 인식하면서 벌어진 촌극(에피소드)을 다룬 영화였습니다.

‘옴부즈맨(Ombudsman)은 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한 일종의 행정 감찰관 제도로써, 행정기관에 의해 침해 받는 각종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3자 입장에서 신속·공정하게 조사·처리해 주는 보충적 국민권리 구제제 도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옴부즈맨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이 민간 전문가를 위촉해 시행하는 ‘행정감시인’ 제도를 말합니다. 공무원들의 부당한 행정을 감시하여, 방지하자는 취지입니다.

대부분 행정기관에서 생산하는 문서와 책자에 ‘옴부즈맨’은 아무런 의심 없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접하는 국민 중 그 뜻을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은 제 추측이지만 아마도 1%도 넘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단어 자체로만 보면 ‘맨(man)’ 정도는 안다 해도 ‘옴부즈’는 도대체 무슨 뜻인지 짐작마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공기관과 언론에서는 옴부즈맨이 이미 보통명사로 자리를 확실히 잡은 터라 현장의 실무 공무원이 이를 자의적으로 ‘행정감시인’ 등으로 순화해 쓰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공무원들에게는 옴부즈맨이 이해가 더 빠르기 때문인데 상급자에게 ‘영똥한 단어’로 보고했다가는 괜한 꾸중을 들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가 옴부즈맨 정책의 목적인데 그 용어가 가진 뜻이 어려워 오히려 ‘국민

**고충민원은
용인시 옴부즈만에게
맡겨주세요!**

시민의 입장에서 전문가의 시각으로 용인시 옴부즈만이 해결합니다!

■ 옴부즈만이란?
시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조사하여 시정하게 함으로써
침해받은 권익을 구제하는 민원조사관

**더 편리하고, 더 포용적인 금융
금융 수호천사,
옴부즈만이 앞장서 도와드립니다.**

금융위원회

여러 공공기관에서 '옴부즈만' 명칭을 활용하고 있다. (출처: 용인시/금융위원회 공식 블로그)

의 쉽게 알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모두가 '홈페이지'라고 부르던 것을 공공기관에서 '누리집'으로 바꾸어 부르는 최근의 현상을 보면, '옴부즈맨'이 '행정감사인'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점까지 부정해서는 안 되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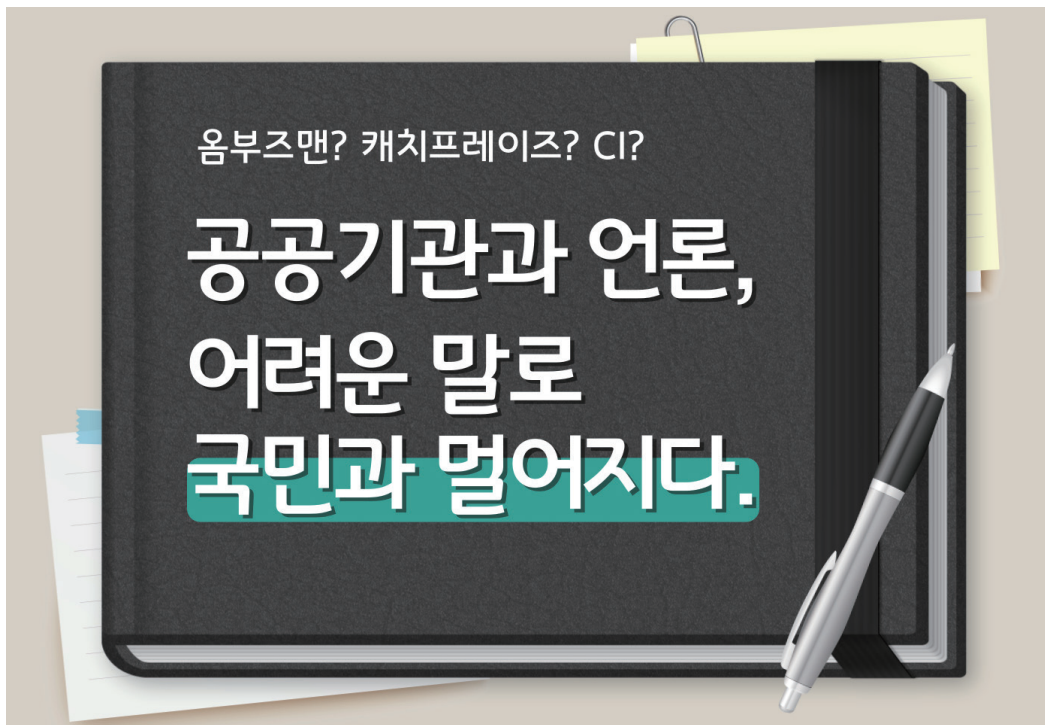
'CI, BI'라는 광고업계 전문용어 역시 옴부즈맨 못지않게 혼란스럽습니다. 원래 CI(Corporation Identity)는 여러 가지 상품을 파는 기업의 이미지를 하나로 응축해 소비자들에게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것, BI(Brand Identity)는 어떤 상품에 대해 그렇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광고 전문회사가 개발한 개념어이자 상품입니다. 상업 기업에 제공했던 이 서비스를 광고회사들이 공공기관까지 시장을 넓힌 결과 많은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도입했습니다.

문제는 기업과 성격이 많이 다른 공공기관에 동일 형식을 적용한 데다 사용자(공무원)들이 광고 전문가도 아니다 보니 'CI, BI'를 비롯해 '캐치프레이즈, 로고, 심볼, 비전' 등 관련된 광고 전문용어들이 한마디로 '중구난방'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들의 개발은 일반 전문기업에 의뢰하므로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 마련입니다.

“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가 옴부즈맨 정책의 목적인데
그 용어가 가진 뜻이 어려워 오히려 ‘국민의 쉽게 알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

물론 이러한 개념들이 불필요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제 소견으로는 각 기관마다 광
고학의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관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개념은 무엇이어
야 하는지’를 엄선했 후 ‘상징 깃발, 도시 상표, 시정 비전, 시정 구호’ 등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 개
념어를 붙여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면 정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하고 있는 고유의 ‘나무, 꽃’ 등은 ‘시 상징 나무, 시 상징
꽃’ 등으로 대부분 이해하기 쉽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들마저 어느 날 ‘시티 심볼 트리, 시티 심볼 플
라워’로 쓰이지 않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이 조금 누그러지면서 여러 공공기관이
‘워크숍(workshop)’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기관마다 ‘숍’의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워크숍, 세미나,
포럼, 브레인스토밍’ 같은 용어들도 ‘수련회, 연구발표회, 연구토론회, 좋은생각(아이디어)개발회’ 등으로 순화
되길 희망해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표지판



양다연

한글문화연대 대학생 기자단 9기

표지판은 특정 사실을 알리기 위해 문자나 그림으로 표시를 해놓은 판을 말한다. 예를 들어 눈에 띄는 붉은 배경 위에 굵은 글씨로 적힌 '주의' 표지판, 화장실 입구 앞에 붙어있는 남자와 여자 그림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마주치는 대표적인 표지판이다. 이와 같은 예시에서처럼, 표지판의 일차 목표는 사람들에게 주의사항을 미리 알려 일어날 수 있는 문제와 곤란한 상황을 피하는 것이다. 표지판에는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인식하는 색, 그림, 그리고 모형이 주로 사용되며,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짧은 문구가 적힌다. 그러나 표지판에 외국어를 남용하면서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짧은 시간 안에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표지판의 기능이 오히려 약화되고 있다. 또한,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하여 한자 교육을 받지 않은 젊은 세대가 표지판을 이해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우리가 평소 일상생활에서 보는 표지판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성별, 나이, 직업 등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지하철역 내부에서 사용되는 표지판을 조사해보았다.

첫 번째 표지는 '인명구조용 트로리'인데, 단번에 이해하기가 힘들어 검색의 도움을 빌린 단어다. 지하철역 안의 '트로리'는 선로보수장비를 이르는 말로, 선로 위에 올리는 것과 선로 밖으로 빼내는 것이 모두 가능한

“표지판에 외국어를 남용하면서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짧은 시간 안에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표지판의 기능이 오히려 약화되고 있다.”



장비다. 평소 일반 대중이 사용할 일이 거의 없는 용어와 물건이나, ‘인명구조용’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사람을 구하기 위해 사용될 물건인 만큼 되도록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이는 ‘궤도자전차’, ‘궤도자동차’ 등의 단어로 수정 수 있는데, 여전히 어려운 한자어임에도 ‘궤도’, ‘차’ 등의 단어를 통해 시민들이 이 ‘트로리’를 자동심장충격기로 오해할 일은 없을 것이다.

또 다른 예시는 서울교통공사 홍보지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언택트(Untact) 지하철 여행’의 ‘언택트’는 접촉을 의미하는 ‘택트(contact)’에 부정을 의미하는 ‘언(un)’을 붙인 신조어로,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함에 따라 ‘비대면’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 시의적절한 단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언택트’가 문제인 이유는 이 단어를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비대면’, ‘비접촉’은 영어 단어를 모르는 어르신이나 아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혹은 ‘거리두기’라는 순우리말을 사용해도 무방할 것이다. 최근 외국어 남용의 문제점이 지적받으며 불필요한 외국어의 사용이 감소하는 추세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불필요한 외국어가 많이 발견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경고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우리말도 지키는 표지판을 만들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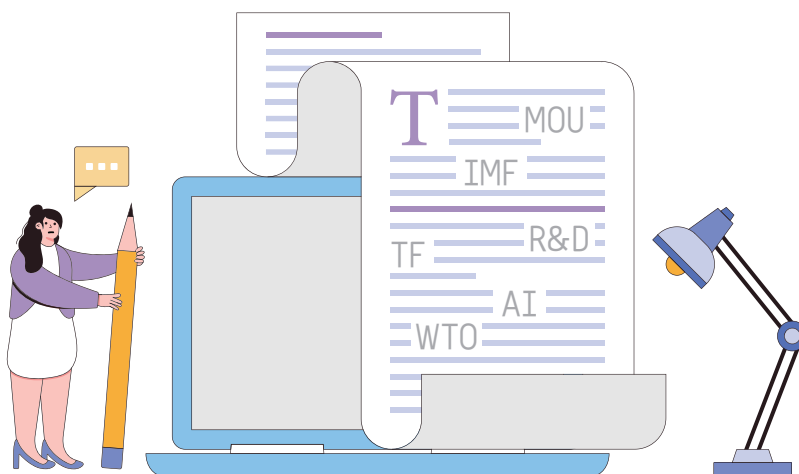


좋은 예시를 지하철역 환승 통로 바닥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화살표 안에 큰 글씨로 적힌 ‘오른쪽 걷기’는 쉬우면서도 표지판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충실히 전달한다. 게다가 ‘오른쪽 걷기’보다 ‘우측보행’이 익숙할 시민들을 위해 두 용어를 모두 써놓는 섬세함도 보였다. 이렇게 쉬운 말을 쓴 표지판이 좋은 이유는 문화적 측면에서도 찾을 수 있다. ‘오른쪽 걷기’ 표지판이 한국인보다 외국인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이 그 근거다.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전국적으로 보행자와 자동차 우측통행을 시행했다. 따라서 굳이 오른쪽 걷기를 알리는 표지판이 없어도 통행에 혼선이 생길 가능성이 작다. 그러나 영국, 일본 등 좌측통행이 원칙인 국가들이 존재하며 문화 차이로 인해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서 위와 같은 표지판을 참고할 가능성이 크다. 한글을 전혀 읽지 못하는 외국인이라면 둘 중 어느 단어가 적혀 있더라도 큰 영향이 없겠지만, 우리말을 배우고 있는 외국인에게는 어려운 한자어인 ‘우측보행’보다 ‘오른쪽 걷기’가 더 쉽게 다가올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람들에게 의미를 빠르고 바르게 전달해야 하는 표지판을 효과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지하철역 한 곳만을 보더라도 ‘제연경계벽’, ‘수막밸브함’, ‘쇄정철저’ 등과 같이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많다. ‘굳이 바꿔야 할까?’라는 생각은 사람들을 더욱 불편하게 할 뿐이다. 표지판에 쉬운 우리말을 씌으로써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면서 우리의 언어도 지킬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공문서에서 어떻게 로마자 사용을 줄일 수 있을까?



국어기본법에 따르자면 공문서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나, 로마자로 대표되는 외국 글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 보도자료에서 한글전용을 위반한다고 함은 한자나 외국 글자를 해당 단어의 뒤 괄호 속에 병기하지 않고 한자나 외국 글자만 본문에 그대로 적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TF를 구성하여’라고 썼다면 한글전용 위반이고, ‘티에프(TF)를 구성하여’라고 쓰면 한글전용 위반은 피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는 음차 표기에 지나지 않으므로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또는 ‘전담조직(TF)을 구성하여’로 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대표적인 공문서라고 할 수 있는 정부 보도자료에서 최근 나타나는 한글전용 위반은 대개 로마자를 독립적으로 본문에 그대로 내세우는 경우인데, 크게 여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국제 도량형 약어인 mm, cm, m, km, g, kg, t, ml, l 등과 화학 원소 등의 로마자는 국어기본법 위반에서 제외하였다.

- 1유형. 'R&D, TF'처럼 용어를 구성하는 단어의 머리글자 약어를 사용하는 경우
- 2유형. 'kick off' 등 외국어 낱말을 로마자 그대로 한글과 섞어 쓰는 경우
- 3유형. 'WHO, IPEF'처럼 국내외 기구 및 단체, 협정, 공공기관, 행사 등의 이름 약어를 쓰는 경우
- 4유형. 'LG, SKT, SSG'처럼 국내외 민간 기업의 이름을 적는 경우
- 5유형. 'A씨, B사' 등 무기명 지칭으로 쓰는 경우
- 6유형. 그밖에 'K-드라마' 등 다양한 이유로 사용하는 경우

1유형은 연구개발을 뜻하는 'R&D', 인공지능을 뜻하는 'AI' 등 여러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용어의 로마자 약어이다. 용어이기 때문에 정부 보도자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유형이다. 이 용어들에는 대체로 우리말 표현이 분명하게 있으므로 굳이 로마자를 괄호 속에 병기할 필요도 없는 말이 많다. 다만 그동안 로마자 표기로만 밝히던 것을 우리말로 고치기 위해 과도적으로 로마자를 병기할 수는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용어로 ASF, ODA, IR, SOC, PM, BRT, GMP, MOU, IoT, OTT, TF, IP, AI(인공지능/조류 인플루엔자), R&D, SNS, ICT, IT, ESG, VR, AR, XR, UAM, NFT, RPA, CPR, IRA 등을 꼽을 수 있다.

2유형은 우리말로 번역할 수 있는 영어 단어를 로마자 철자 그대로 적는 경우이므로 한글전용 규정에서 정면으로 벗어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kick off, one stop, one point, off the record, first mover, fast follower 등 일종의 유행어 성격의 말들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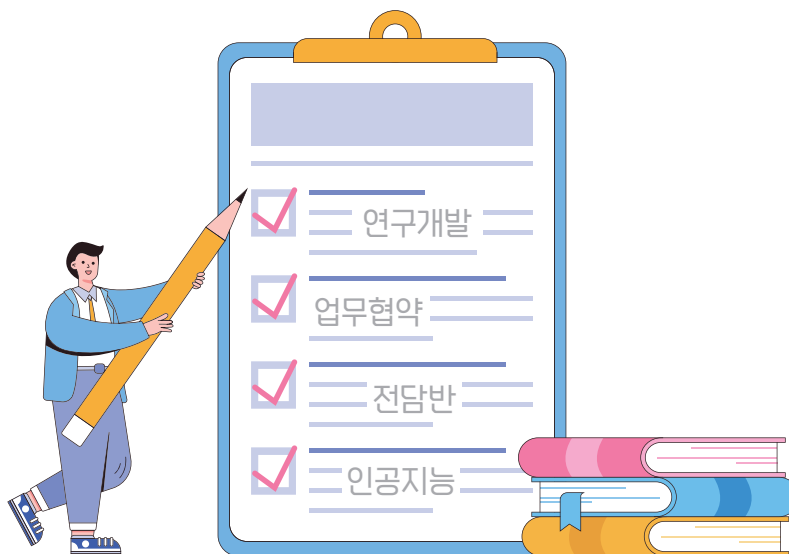
3유형은 정부 보도자료에서 1유형 다음으로 많이 등장하고 가지 수도 많다. 기구나 협정은 대체로 3개 이상의 외국어 단어로 이름을 붙이는지라 로마자 머리글자만 따서 약칭을 사용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었다. 이 유형에 속하는 말 가운데 우리말로 번역하여 바꿀 수 있는 이름은 우리말로 바꾸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음차하여 한글로 적는 것이 국어기본법을 지키는 길이다.

WHO-세계보건기구, WTO-세계무역기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혹은 경제기구, UNICEF-국제아동기금, ILO-국제노동기구, IMF-국제통화기금 등처럼 우리말로 바꿀 수 있다. 우리말로 이름을 붙여 부르기 어렵거나 이미 너무 굳어버린 이름이라면 음차하여 한글로 적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UNESCO-유네스코(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UN-유엔(국제연합) 등이 대표적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로마자 약어에 대해

우리말 표현도 줄여서 약칭으로 만드는 방안은 로마자 약어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실용적인 길이 될 것이다.

기구나 기관 이름이 아니라 상표가 되어버린 상호 별명 약칭을 공문서에 그대로 적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를 들어 ‘LH’의 법인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고, ‘KORAIL’은 ‘한국철도공사’, ‘K-WATER’는 ‘한국수자원공사’, ‘KBS’는 ‘한국방송공사’의 로마자 약어 상표이니, 공문서에서는 이 상표로 부르거나 적을 게 아니라 등기한 법인명을 사용하거나 적절한 줄임말을 써야 한다. 그럼에도 국내 공공기관들이 경쟁적으로 로마자 약어 이름을 홍보하는 바람에 정부 보도자료에서도 이를 그대로 받아 적고 있고, 언론에도 그렇게 퍼지고 있다. 따라서 국내 공공기관과 함께 우리말 약칭을 부여하고 서로 공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4유형은 민간 기업 등의 이름이므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다. 민간 기업의 이름 표기를 그들의 표현과 다르게 해도 되는가 하는 망설임이 일기 때문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내의 많은 기업이 그동안 사용하던 한자어 이름을 로마자로 음차하여 적은 뒤 음절의 첫 글자 로마자를 따서 약칭을 만드는 게 하나의 유행처럼 번졌다. 럭키금성이 LG로, 신경이 SK로, 동부그룹이 DB로, 신세계가 SSG로 이름을 바꿔 표기한 게 대표적이다. 그렇지만 국내에서 기업은 법인명을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2007년 시행)에 따라 한글로 등록해야 하므로, 공문서에서는 이에 따라 등록한 한글 표기를 써야 한다. 꼭 필요하다면 괄호 속에 로마자를 병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과거의 한국통신은 이제 ‘케이티’로 등기가 되어 있으므로 케이



티(KT)로 적어야 한다. 에스비에스(SBS),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엘지(LG) 등도 마찬가지이다. 외국 회사에 대해서도 애플, 구글, 아마존 등을 한글로 적고 있으므로 이런 원칙을 기준으로 삼는 게 문제가 될 일은 아니다. 특히 은행들이 많이 사용하는 KB, NH, KEB 등의 약어 상표는 법인명도 아니고 마케팅용 기호일 뿐이므로 공문서에 서 이를 그대로 사용할 이유가 없다.

5유형은 ‘A, B, C’ 등의 로마자를 무기명 지칭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우리말 속에 외국말이나 외국 글자가 섞이게 되면 확실히 튀는 느낌이 있어서 변별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사용하기 쉽다. 다만 최근에는 이를 ‘가, 나, 다’ 또는 ‘ㄱ, ㄴ, ㄷ’으로 쓰기도 함을 알고 넘어가자.

6유형은 앞서 분류한 다섯 가지 외의 나머지 로마자 표기이다. 한국을 뜻하는 ‘K-’ 무리, 전자와 관계있는 ‘E-’ 무리, 비타민 종류, 자동차와 무기 등의 이름을 뜻하는 로마자 기호가 대표적이다.

6가지 유형 중 어떤 유형의 로마자부터 줄여나가야 할까. 2022년 1~6월 사이에 정부(47개 중앙행정기관, 17개 광역자치단체) 보도자료에서 사용한 로마자 표기를 모두 분석해본다면 앞의 유형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2022년 상반기 보도자료 로마자 표기 유형별 분포

(2022년 1월~6월)

나눔	대표단어	단어 수	출현 횟수	출현 비율
1유형	AI	860	10,167	51.1%
2유형	kick off	475	1,341	6.7%
3유형	WHO	414	4,402	22.1%
4유형	SK	364	2,020	10.2%
5유형	A	90	1,116	5.6%
6유형	K-	57	846	4.3%
합계		2,260	19,892	100%

1유형이 용어의 수량 면에서나 출현 횟수 면에서나 가장 비중이 높고, 그다음이 국제 기구 등의 약칭인 3유형이다. 그렇지만 이는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의 보도자료를 통합하여 집계한 결과이고, 아무래도 국제 사안을 많이 다루는 중앙행정기관만의 로마자 표기 양상을 보면 3유형의 사용 횟수가 매우 높다. 중앙행정기관이 2022년 상

반기에 사용한 로마자 표기에서 상위 100개의 단어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68.3%이다. 이 상위 100개의 로마자 표기 가운데 1유형의 사용 비율은 46.7%이며 3유형의 비율은 38.8%이다. 두 곳에서 모두 로마자 사용을 줄일 실질적 방안을 모색해야 전반적으로 로마자 사용이 의미 있게 줄어든 것이다.

우선 다음 두 가지부터 실천에 옮겨 보면 좋겠다.

첫째, 1유형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용어 가운데 누구에게나 번역어 사용이 전혀 무리 없고 의미 전달도 잘 되는 말들을 우리말 대체어로 바꾸어 사용하면 된다. 그 대상어와 우리말 대체어를 보이자면 다음과 같다.

AI	①인공지능②조류 인플루엔자	MOU	업무협약
AR	증강현실	NFT	대체불가토큰
ASF	아프리카돼지열병	ODA	공적개발원조
BRT	간선급행버스	OTT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CPR	심폐소생술	PM	개인이동수단
ESG	환경·사회·투명 경영, 사회가치경영	R&D	연구개발
GMP	제조및품질관리기준	RPA	업무처리자동화
ICT	정보통신기술	SNS	누리소통망, 사회관계망
IoT	사물인터넷	SOC	사회기반시설
IP	지식재산권	TF	전담반
IR	기업투자설명회	UAM	도심항공교통
IRA	물가오름감축법, 물가상승감축법	VR	가상현실
IT	정보기술	XR	확장현실

둘째, 국제기구와 국내 공공기관, 국제협정 등의 로마자 약칭 사용을 줄이는 것이다. 연방준비제도가사회를 ‘FED, 페드’라고 적거나 읽는 사람들도 있지만, 방송에서는 대체로 ‘미 연준’이라고 줄여 부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또한 ‘UNSC’로 적거나 부르지 않고 ‘안보리’라고 부른다. 이처럼 외국어로 된 이름의 로마자 약칭을 그대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말 이름을 줄여서 부르면 로마자 사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혹 어떻게 줄여 부를지 고민스럽다면 ‘쉬운 우리말을 쓰자’(www.plainkorean.kr) 누리집에서 ‘쉬운 우리말 사전’을 찾아보면 민간에서 권장하는 약칭들이 나오니, 이를 참조하면 된다.

언어, 정책 지원의 진정한 시작

으뜸상 김경준



창업처럼 정보 비대칭이 심한 분야는 없을 것이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창업에 대한 전반적 지식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다.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가치 있고 유용한 정보는 성공한 기업가나 실력 있는 투자자들에게서 얻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개인적 인맥으로 소수에게만 알음알음 공유된다. 창업 관련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용이성 자체가 떨어지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창업 실패 후 감수해야 할 위험 수준이 다른 국가들보다 유독 높은 편이다. 2021년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역동적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를 보면 창업 후 5년이 되면 3분의 2 이상의 기업이 폐업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성공보다는 실패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을 포기한 이들을 ‘인생의 패배자’로 낙인찍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창업에 우호적이지 않은 문화이기 때문에, 정부 기관의 중요성이 대두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공적 영역에 상당 부분 의존하며 조심스럽게 창업을 향해 한 발짝 내딛는다.

나는 벤처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초기 창업자들에게 많은 문의 전화를 받곤 한다. 수화기 너머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그들의 답답함과 막막함이 고스란히 전달된다. 나는 벤처기업 투자 기금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창업자들을 직접 지원하는 영역과는 거리가 먼 일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의 힘든 사연을 듣고 “저희 기관 소관 업무가 아니니까 다른 곳에 전화해 보세요.”라는 기계적인 말이 차마 입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이들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찾아보던 중에, 창업 지원 정보가 집대성된 ‘K-Startup(케이-스타트업) 창업지원포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후 나는 이러한 전화를 받으면 이곳에 가 보라고 추천했다.

우리 기관이 주관하는 누리집이 아니므로 어떤 내용이 게시되었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창업자들이 창업 지원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고안한 창구라서, 내게 문의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낙관적 기대감으로 추천한 것뿐이었다. 내가 권유한 곳인데 그 내용을 잘 모른다는 것은 책임 유기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래서 나는 그 누리집에 들어가 어떤 게시물이 올라와 있는지 찬찬히 살펴봤고, 충격에 휩싸였다.

제목은 거의 다 외국어로 도배되어 있었고, 벤처업계에 종사하는 나마저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사업 명칭이 꽤 있었다. 그중 두 가지 사례를 언급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TIPS(팁스)’라는 사업이다. TIPS는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테크 인큐베이터 프로그램 포 스타트업)’의 약자다. 민간기관의 투자뿐만 아니라 정부 지원금과 입주 공간, 상담 및 지도 등 여러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벤처기업들이 참여할 만한 요소가 충분하다.

그런데 영어 표현인 데다가 로마자로 축약된 형태여서 사업 명칭을 보고 그 의미를 유추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러한 지원이 필요한 기업인들이 분명 많이 있을 텐데 만일 상세 설명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명칭만 본다면, 자신과 관련 없는 정책인 줄 알고 넘겨버릴 가능성이 크다. 만일,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이라는 우리말 표현을 전면에 내세운다면 이러한 확률을 줄일 수 있을 텐데 말이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운 사례였다.

두 번째는 ‘엑셀러레이팅’이라는 용어였다. 정책 수혜의 대상이 폭넓어 금융, 교육,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의 창업 지원에 통용되는 단어였기 때문에 주목해서 볼 수밖에 없었다. 엑셀러레이팅은 투자 유치·연계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할 뿐만 아니라, 직접 투자까지 집행하는 ‘엑셀러레이터’가 주체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용어가 탄생한 것이었다.

“엑셀러레이터를 사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엑셀러레이팅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영단어 하나로 그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사실, 엑셀러레이터는 ‘창업 기획자’라는 우리말로 쓸 수 있다. 그러나 창업 기획자라는 단어를 먼저 표기한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누군가는 ‘그저 영어 하나 쓰는 것이 무슨 대수냐.’라고 이 문제를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은 채 통명스럽게 대응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엑셀러레이터를 사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엑셀러레이팅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영단어 하나로 그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지속해서 다른 영단어가 파생함으로써, 무분별한 외국어 남용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를 경계하고 피해야 한다. 그리고 ‘창업 기획자’라는 단어가 ‘엑셀러레이터’보다 이들의 정체성을 더 잘 나타낸다. 우리는 창업 기획자라는 단어를 듣고 ‘이들은 창업 초기 기업을 발굴하고, 전반적 방향을 기획하며, 성장을 지원하는 전문가 집단이다.’라고 쉽게 정의 내릴 수 있다. 우리말을 지킬 수 있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말 표현이 실보다 득이 훨씬 크다는 걸 깨닫게 된 계기였다.

나는 업무 특성상 창업 생태계 구성원들, 이를테면 벤처 투자자 및 정부 부처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주고받는다. 이들의 언어 대부분은 알아듣기 힘든 외국어다. 처음에는 단어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될 정도였다. 물론 시간이 지나고 경험과 지식이 쌓이면서 이러한 어려움이 차차 줄어들긴 했다. 그러나 처음 창업을 시작하는 이들에게는 지적 허영심이 가득한, 외국어 범벅인 정책을 대하며 언어가 큰 장벽이 되겠다는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 창업이라고 하는 명확한 답이 없는 여정에서
어떻게든 길을 찾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찾았던 곳에서
외국어로 가득한 정책들을 마주한다면
그들은 오히려 길을 잃게 될 것이다. ”

어떤 이는 우리나라 벤처 생태계가 창업 선진국인 미국에서 상당 부분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 아니냐고 반박할 수 있다. 어찌 보면 타당해 보이지만 이러한 관용을 공공 영역에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 창업 관련 정책들은 미국 제도를 차용하는 것이 많다. 그러나 미국의 대담한 창업 문화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만 옮겨와야지, 용어까지 그대로 모방하는 것은 안일한 결정이다. 큰 고민 없이 외국어를 남용하는 것은 정책 수요자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조치다. 창업이라고 하는 명확한 답이 없는 여정에서 어떻게든 길을 찾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찾았던 곳에서 외국어로



가득한 정책들을 마주한다면 그들은 오히려 길을 잃게 될 것이다.

정책을 세울 때 어떠한 대상에게 어느 정도 규모의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혜택을 제공할 것인지 정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정책 지원의 진정한 시작은 수요자가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될 용어를 고찰하는 데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정책 수요자들이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을지, 이 용어가 사업 신청을 하는 데 오히려 장애 요소가 되지는 않을지를 심도 있고 세심하게 의논해야 한다. 수요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채택할 때, 비로소 그 정책은 국민 다수의 시선에 포착될 것이다. 이것만큼 강력한 정책 홍보 방안은 없을 것이다. 지원 정책이 유명무실해지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힘차게 도달할 수 있도록 언어에 대해 고민할 시점이다.

벽을 넘어서

버금상 김보미



수감 생활은 수감자의 모든 자유를 제한한다. 먹거나 자거나 입는 것, 일하는 것 등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간혀 있는 것 자체가 형벌인 그곳에서도 죄를 지으면 독방에 갇히는 벌을 받는다. 수감자들은 독방 생활이 가장 끔찍하다고 한다. 그러니까 수감 생활보다 더 큰 형벌은 혼자 있는 것이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존재다. 소통하고 반응하는 것이 인간의 일상이다. 독방에 갇힌다는 것은 고립과 고독의 바다에 뛰어드는 일이다. 아무리 신호를 보내도 구조될 수 없는 그 깊은 절망에 나 스스로 빠진 적이 있었다. 나 자신을 벽 안에 가둔 것이다.

●●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존재다.
소통하고 반응하는 것이 인간의 일상이다. ●●

나는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뒤틀린 지체 장애인이다. 자라면서 사지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술 취한 사람이 비틀거리듯 걸었다. 길을 걸어가면 지나가는 사람 모두가 구경하듯 나를 돌아봤다. 건물 안에 들어서면 그곳이 어디든 따가운 주목을 받았다.

온 가족의 도움으로 학교를 겨우 다녔지만, 매시간이 지옥이었다. 또래 아이들은 사지가

뒤틀린 채 비틀거리는 나를 ‘괴물’이라고 불렀다. 아이들끼리 나한테 돌 던지기, 넘어뜨리기, 밟고 지나가기 등의 놀이가 유행했고, 내 몸은 성할 날이 없었다.

거리에 나서는 사람들의 쏘아보는 눈빛, “그 몸으로 왜 밖에 나왔냐.”라는 뽀족한 말에 매일 몸과 마음을 다쳤다.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 또래 아이들의 괴롭힘, 세상의 차가운 반응에 나는 점점 지쳐갔다. 모두의 주목을 받은 채 뭔가 일을 처리할 때면 몸은 더 불안하게 떨렸고, 발음도 한층 어눌해졌다. 그래서 관공서에 가서 처리할 중요한 일이나, 병원 방문 같은 것들을 포기한 적도 많았다.

나를 돌보느라 고생하는 가족들을 위해 억지로 열심히 사는 척했지만, 속으론 끓아가고 있었다. 10여 년을 그렇게 보낸 후, 성인이 되자마자 나는 나 자신을 내 방에 감금했다. 방문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자물쇠를 걸었다. 처음엔 ‘그러다 말겠지.’ 하던 가족들도 내가 반년째 두문불출하자, 힘으로 방문을 부수고 나를 데리고 나가려고 했다.

부모님이 나를 들어 올리고, 오빠가 뒤에서 밀며 제발 거실까지라도 나가자고 사정했지만 나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손목을 문고리 안에 넣고 버티느라 팔에 상처가 생기고 나서야 풀려날 수 있었다. 그 후, 몇 차례 비슷한 무력 사태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나만 다치고 끝이 났다. 결국, 가족들도 나를 포기했다.

아무하고도, 심지어 가족과도 말 한마디 섞지 않은 채 완벽한 혼자가 되자, 안도감이 몰려왔다. 마침내 혼자가 되었다. 이제 누구에게도 상처받지 않을 수 있다. 괴롭힘당하지 않을 수 있다. 혹시나 누군가와 친구가 되진 않을까 하는 헛된 기대가 무너져 절망하지 않아도 된다. 함께인 채 너무 아팠기 때문에 나는 혼자이기만 해도 편안해졌다.

재활 치료를 하러 병원에도 가지 않았고, 유일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복지관에도 가지 않았다. 가족들이 있을 때는 화장실도 가지 않았다. 그렇게 나는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비록 벽 안에 갇힌 신세였지만 아무도 나를 볼 수 없었고, 누구도 나를 상처 입힐 수 없었다.

그러나 내 수감 생활은 가족들에게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이었다. 특히, 엄마가 매일 밤 방문 고리를 잡고 사정하실 정도로 괴로워하셨다. 내 치료비를 벌기 위해 힘들게 일하고 오셔서 쉬지도 못하고 밤늦도록 나를 설득하는 엄마의 피곤한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흔들렸지만 그래도 방문을 열지 않았다.

그렇게 속절없이 시간이 흘렀을 때, 엄마가 반색하며 내 방문에 대고 말씀하셨다. 장애인 복지 정책 중에 활동 보조 제도가 있다고 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도록 활동 보조사 선생님들이 바깥 활동을 함께해주는 것이었다. 활동 보조 선생님이 관공서나 병원 같은 곳도 따라가 주시고, 영화나 미술관 관람 같은 문화생활도 함께해주시

다고 했다.

그러면 외출하는 내내 보호자가 있는 셈이고, 말을 하거나 뭔가를 처리하는 일도 도와주실 테니 훨씬 외출하기 편하지 않겠느냐고 엄마가 간곡히 나를 설득하셨다. 엄마랑 같이 구청에 가서 설명만이라도 들어보라고,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고도 싫으면 그때는 엄마도 포기하겠다고 하셨다. 활동 보조 선생님이 나의 모든 바깥 활동을 도와준다는 말에 자꾸만 마음이 움직였다.

나는 그럼 아주 잠깐 설명만 듣고 오기로 조건을 달고, 아주 오랜만에 엄마와 집을 나섰다. 마치 오지에서 처음 도시에 온 것처럼 모든 것이 새롭고 눈부셨다. 그러나 그 새롭고 경이로운 감정은 금세 사라졌다. 언제나처럼 사람들의 눈빛이 나를 찔러댔다. 구청 문을 열고 비틀거리며 들어서자,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것도 여전했다.

엄마가 장애인 복지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 활동 보조 정책을 문의하자, 구청 직원이 여러 가지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내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식은땀을 흘리며 괴로워하자, 엄마가 내 손을 꼭 잡아주셨다.

“활동 보조 선생님들은 이 메신저를 통해 매칭이 되고요. 도움이 필요하실 때, 메신저 가운데 있는 콜 버튼 누르시면 오토 매칭되는 시스템이라 따로 뭔가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쪽에서 콜 받으면 리셉션도 이 메신저로 받으시게 될 거예요.”

활동 보조 선생님이 필요할 때는 손바닥 정도 되는 크기의 기계를 사용하면 된다는 말이 었다. 내가 선생님을 요청하면 기계가 자동으로 시간이 되는 활동 보조 선생님을 연결해 준다는 것을 엄마는 알아듣지 못하신 기색이었다.

받아 적는 것조차 쉽지 않으신지 메모지에 괜히 내 이름만 썼다 지웠다 하시던 엄마는 뭔가를 질문하려다 말고 내 눈치를 보셨다. 직원이 뭔가를 더 설명하려고 했지만, 엄마는 알았다는 대답만 하시곤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엄마는 난처하고 곤란해 보였다. 꼭 누가 쫓아낸 것처럼 부끄러운 얼굴을 하고 계셨다.

●● 나는 그 짧은 순간, 몇 개 안 되는 영어 단어가
거대한 벽이 되어 엄마를 가두는 모습을 똑똑히 보았다. ●●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쓰는 영어 단어일지 몰라도 작은 어촌 마을에서 살아오신 중년의 엄마에게는 얼른 알아들을 수 없는 복잡한 외국어였다. 나는 그 짧은 순간, 몇 개 안 되는 영어 단어가 거대한 벽이 되어 엄마를 가두는 모습을 똑똑히 보았다. 꼭 나처럼 벽에 갇힌

엄마를 보고 있으니 답답하고 속상했다.

처음으로 엄마를 위해 벽을 넘고 싶어졌다. 나 자신이 아니라 엄마를 위해 용기를 냈다. 나는 엄마의 손을 이끌고 다시 구청으로 들어갔다.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너무 오랜만이라 목소리가 다 갈라져서 나왔다. 나는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떨리고 불분명한 발음으로 아까 설명해주실 때 영어 단어가 섞여 있어 알아듣기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직원은 아차 하는 표정으로 우리 모녀에게 사과했다. 오후 시간이라 긴장이 풀려 편하게 말한 것 같다고 솔직하게 말하면서 진심으로 사과하는 직원을 보던 엄마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치셨다. 직원의 태도에 엄마도 편해지신 것 같았다. 조금만 쉽게 이야기해주면 좋겠다는 엄마의 말씀에 직원이 영어 단어를 우리말로 바꾸어 다시 설명해주었다.

나는 엄마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다. 영어 단어를 못 알아들은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당연히 한국어로 설명했어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나처럼 벽 안에 갇히지 마시라고 말하고 싶었다. 엄마는 직원의 쉬운 설명을 들으며 내 뜻을 어느 정도 짐작하신 것 같았다.

아까와는 다르게 엄마가 적극적으로 기계 사용법을 꼼꼼하게 직원에게 물어보고, 천천히 설명해달라는 요청도 하면서 메모하셨다. 소통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시던 엄마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나도 다시 한번 의지를 다졌다.

그렇게 함께 각자의 벽을 넘어선 우리 모녀는 사이좋게 손을 잡고 다시 세상으로 나왔다. 나는 활동 보조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외출과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했다. 병원을 다니면서 재활 치료를 받고, 구직 활동에도 도움을 받아 직장까지 얻을 수 있었다.

❖ 물리적인 벽만 사람을 가두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다른 사람과
대화할 수 없이 고립되면 거기가 바로 독방이다. ❖

엄마는 그때의 곤란했던 경험을 살려 마을에 계신 연세 많으신 어른들의 관공서 불일을 도와드리기로 했다. 엄마는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이 복지 정책의 대상이 되어도 ‘바우처’와 같은 영어 단어들을 알아듣기 어려워 혜택을 포기하고 계신다며 어르신들을 돕는 일에 열정적이었다.

물리적인 벽만 사람을 가두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다른 사람과 대화할 수 없이 고립되면 거기가 바로 독방이다. 영어 단어 몇 개가 만들어낸 보이지 않는 언어의 벽도 충분히 사람과 사람을 단절시킬 수 있다. 어쩌면 그 보이지 않는 벽



이 물리적인 벽보다 더 단단하고 복잡할 수 있다.

뭔가 안내받기를 원하거나, 정보를 찾는 사람들은 특히나 어떤 벽을 넘어서려고 용기를 내는 중일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의 괴로움과 절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벽을 넘어서려는 사람에게 우리말을 사용함으로써 힘을 보태면 어떨까. 외국어 대신 선택한 우리말이 우리를 벽 너머에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기쁨을 알려주는 다정한 이웃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불편함을 넘은 불이익

으뜸상 동덕여대 러닝타임



청소년, 청년 복지 혜택을 다루는 뉴스에 외국어 표현이 난무한다. 외국어에 익숙한 청년은 어느 정도 의미를 파악해 혜택을 받았지만,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한 청년은 수혜 대상자임에도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고…….



할아버지의 하루

버금상 고프로



늘어나는 외국어, 세상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투성이다. 외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할아버지는 외국어를 접할 때마다 점점 시야가 좁아진다. 단어를 이해하지 못해 복지 혜택을 누릴 수도, 뉴스로 세상을 알 수도 없다. 그러나 젊은 세대인 손녀도 몇몇 외국어를 이해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인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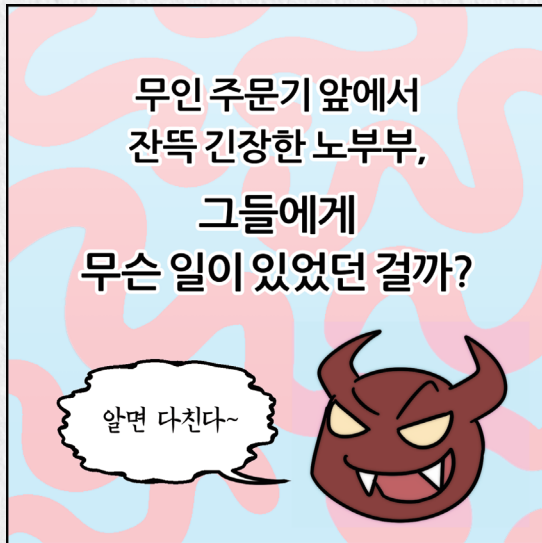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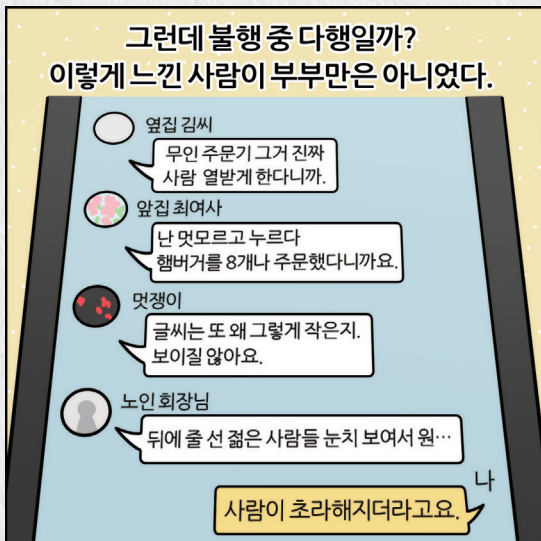
다른 수상작이 궁금하다면? 쉬운 우리말을 쓰자 <https://www.plainkorean.kr/>

무인 주문기의 악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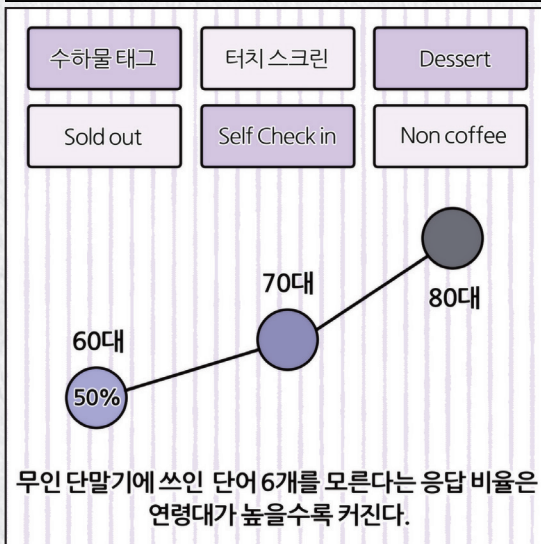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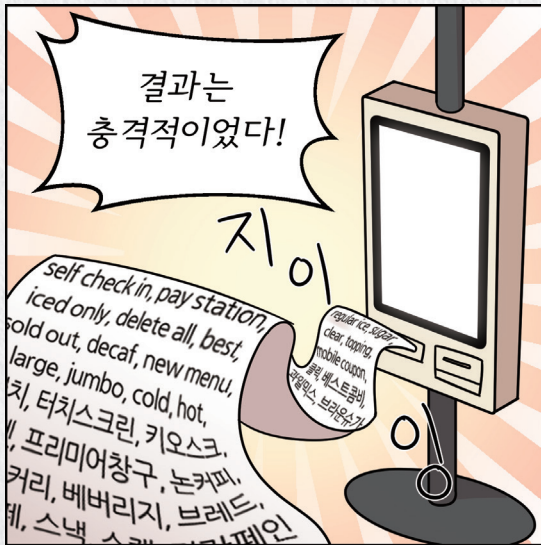
최슬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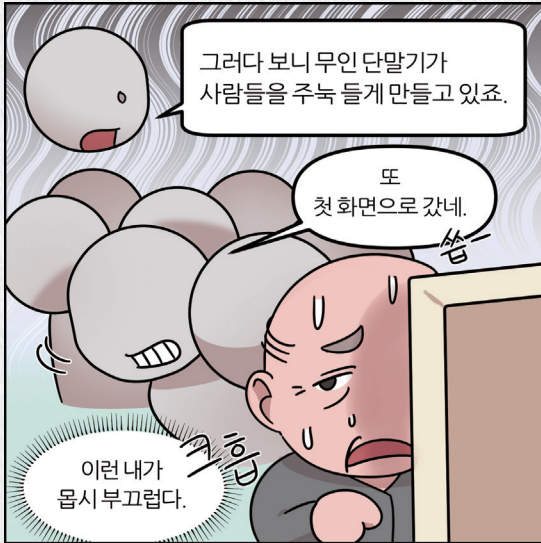












‘아웃바운드’ 대신 ‘국외여행’



김태경

한양대학교 창의융합교육원 교수,
한양대학교 한국어문화원 원장



장기간 사회적 거리두기에 지친 많은 사람의 관심이 최근 여행과 관광에 몰리고 있다. 인터넷에서 여행 관련 기사를 검색해본 사람이라면 ‘SIT’라는 용어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SIT’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알 수 없어서 그 뜻을 찾아보았더니 ‘Special Interest Tourism’을 줄여 부르는 말이라고 나온다. 즉 관심 분야에 적합한 여행지를 방문하여 그 지역의 고유한 체험 활동을 하는 특수한 목적을 지닌 관광이라는 뜻이다. 쉽게 말해서 ‘특수 목적 관광’이다. ‘SIT’라는 용어를 앞세우고 그 뒤에 ‘특수 목적 관광’이라는 표현을 덧붙인 기사문도 보인다. 그러나 애초에 ‘SIT’ 대신 ‘특수 목적 관광’이라고 쓸 수는 없는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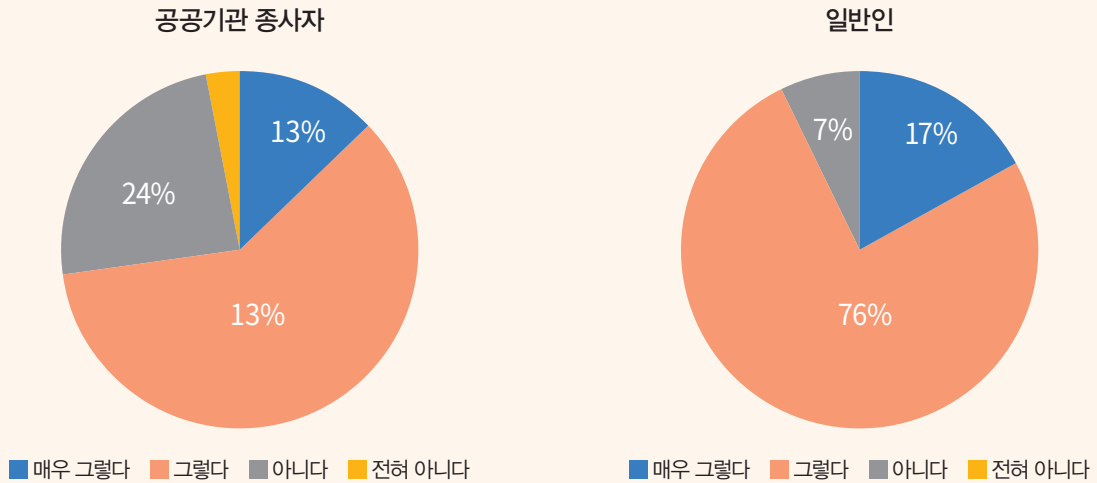
2005년에 제정된 국어기본법에서는 공문서 쉽게 쓰기 방안으로 제14조 1항에 ‘공공기관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공문서 한글 전용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2017년 3월에는 국어기본법 제

14조 1항이 개정되어 과거에 단지 한글 전용 표기만을 규정한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다. 최소한 국민 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에서만큼은 일반 국민이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을 사용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나 법적 규정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공공언어의 개선은 미미한 실정이다. 보도 자료나 공공기관의 누리집 화면을 보면 지나치게 어려운 전문용어나 외국어 남용이 심각한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공공언어에서조차 전문용어나 외국어를 남용하게 되면 꼭 필요한 정보로부터 소외되는 사람이 생겨날 뿐 아니라 민원 발생이 늘어나 행정 효율도 떨어지게 된다.

한양대학교 한국어문화원에서는 2021년 문화체육관

기존에 사용하던 용어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가?(전체 평균)



광부 ‘정부 공공기관 대상 어려운 전문용어 개선 지원 사업’의 하나로 <경기관광공사>와 협력하여 보도 자료나 공고문 등에 쓰인 어휘 목록을 조사하고, 이 가운데 외국어와 어려운 한자어로 된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다듬어 배포하였다. 순화어 목록을 확정하기에 앞서, 각 후보 목록의 순화 필요성과 대체어의 적절성에 대한 공공기관 종사자와 일반인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가 외국어와 한자어 등 어려운 용어의 순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공공기관 종사자가 생각하는 용어 개선의 필요성과 일반인이 생각하는 필요성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었다. 공공기관 종사자에 비해 일반인들의 개선 요구가 훨씬 높게 나타난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서한, 선순위, 트래블마트, 배리어프리’ 등 한자어나 외래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반면, 일반인들은 ‘MICE 사업, Post-COVID, IoT, PPL, TF’ 등 외국어 약자로 만들어진 용어를 우선적으로 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최종적으로 다듬은 말 목록 50개를 제시하고(아래 표), 쉬운 우리말 용어를 널리 알리기 위해 1분 내외의 영상 카드뉴스 10편을 별도로 제작하였다.



다듬은 말 목록(한양대 한국어문화원, 경기관광공사)

	대상어	다듬은 말
1	BP	우수 사례, 모범 사례
2	ICT	정보 통신 기술, 정보 문화 기술
3	IoT	사물인터넷
4	MOU	업무 협정, 업무 협약
5	OTT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6	PCO	행사 대행 업체, 행사 전문 업체
7	Post-COVID	코로나 이후 시대, 코로나 이후
8	PPL	간접 광고
9	R&D	연구 개발
10	ROS	매출액 수익률, 매출 수익률
11	SIT	특수 목적 관광, 특정 관심 관광
12	SOC	사회 기반 시설, 사회 간접 자본
13	TF, TFT	(특별) 전담조직
14	VR	가상 현실
15	갈라 디너	뒤풀이 만찬
16	그랜드투어	체험 여행
17	데이터랩	데이터 융합 분석 서비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18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 디지털화
19	로컬	현지(의)
20	로컬택스	지방세
21	마인드 함양	인식 함양
22	메가 이벤트	대규모 행사, 초대형 행사
23	배리어프리	무장벽, 장벽 없는
24	블루콘텐츠	해양문화자원
25	서한	편지

	대상어	다듬은 말
26	선순위	우선순위
27	세일즈콜	방문 영업, 현지 방문 영업
28	아웃바운드	국외여행
29	아카이브	자료 보관소, 자료 저장소, 기록 보관소, 자료 전산화
30	양여	넘겨줌, 넘겨준
31	언택트	비대면, 비접촉
32	얼라이언스	제휴 관계, 연합체
33	온라인 헬프	온라인 도움말, 온라인도움
34	유자격	자격 있는, 전문
35	유희	안 쓰는
36	이커머스	전자 상거래
37	인센티브	성과급, 혜택
38	인프라	기반 시설, 제반 시설
39	자부담	자기 부담, 본인 부담
40	캠퍼	아영객
41	컨버전스	복합 (기기)
42	킬러콘텐츠	핵심 콘텐츠, 돌풍 콘텐츠, 선풍적 콘텐츠
43	트래블 마트	관광 박람회
44	트레일러닝	산악 달리기
45	패밀리형	가족형
46	팸투어	(초청) 홍보 여행
47	플래그십 마케팅	대표상품 마케팅
48	하이브리드 행사	(온오프라인, 대면·비대면) 병행 행사
49	헬프라인	익명 제보 시스템, 익명 제보 창구
50	힐링투어	치유 여행, 마음 치유 여행

쉬우리와 함께 알아보는 쉬운 우리말!



안녕하세요.
쉬운 우리말을 알리는
귀염둥이 '쉬우리'와 함께
쉬운 우리말 영상 만나볼까요?

쉬운 우리말 누리소통망

인스타그램 @plain_korean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urimal2020>

블로그 <https://blog.naver.com/urimal2020>

새로운 업무 방식에 관한 쉬운 우리말



회사에서만 일하는 시대는 끝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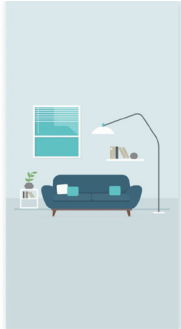
그런데 워케이션, 코워킹 스페이스…….

이 말들은 다 무슨 뜻이지?

말을 몰라서 새로운 업무 방식에 도전하지 못하고 있다
면 꼭 봐야 할 영상!



주거 문화와 관련된 쉬운 우리말



주거 문화와 관련된

우리말



소문난 집순이인 나, 재택경제활동을 하며 집에 꼭 머무는 집놀이족이다.

월 때도 집에서 멀어질 수 없지. 근거리 휴가가 최고다! 이렇게 쉬운 집순이 용어, 원래는 어려운 외국어였는데?



노년 생활에 관한 쉬운 우리말



멋지게 나이 들고 싶은 사람은 주목!
우리말이라고 해서 촌스럽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웰 에이징보다 건강 노년 맞이
실퍼 서퍼보다 디지털 친화 어르신
에이지리스보다 나이 무관이 멋지다고.



반려동물에 관한 쉬운 우리말



우리 집 강아지, 귀염둥이 뽀뽀!
반려동물 돌봄족과 함께 살며
반려동물 친화 매장을 다니는 게 취미다.
반려동물 산업에 관한 말이 쉬워서
뽀뽀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다.



기관 ‘상징’을 적절한 우리말로!



정부기관, 공공기관은 기관의 특성을 드러내기 위해 여러 ‘상징’을 활용한다. ‘상징’과 ‘상표’를 뜻하는 말로 ‘CI(Corporate Identity)’, ‘BI(Brand Identity)’, ‘로고’, ‘심벌’ 등을 활용하고 있는데, 서로의 개념이 정확히 분리되지 않을뿐더러 뜻도 모호하게 느껴진다. 특히 ‘CI’는 ‘기업 이미지 통합’ 작업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므로 상징물 자체에 사용했을 때 국민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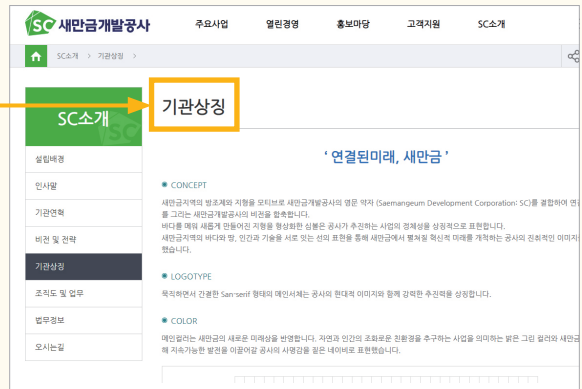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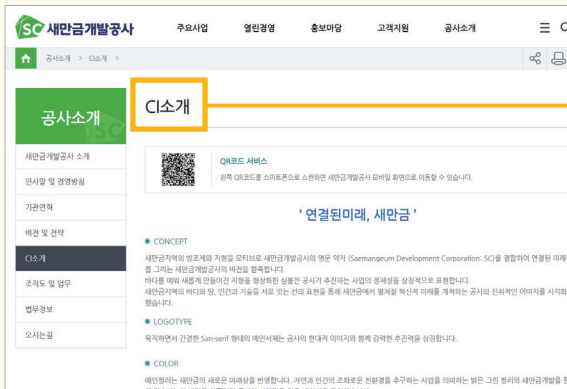
2021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97곳에 ‘CI’, ‘BI’, ‘로고’, ‘심벌’을 ‘상징’, ‘문양’ 등으로 바꿔 써 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33곳에서 답변을 받았다. 이 가운데 28곳이 우리말로 바꾸거나 변경 계획을 밝혔으며, 1곳은 논의를 거쳐 추후 변경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상징’ 관련 외국어를 우리말로 바꾼 곳들(28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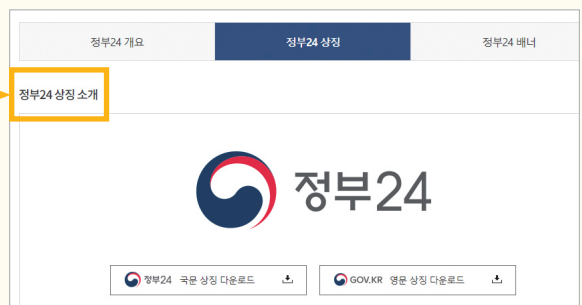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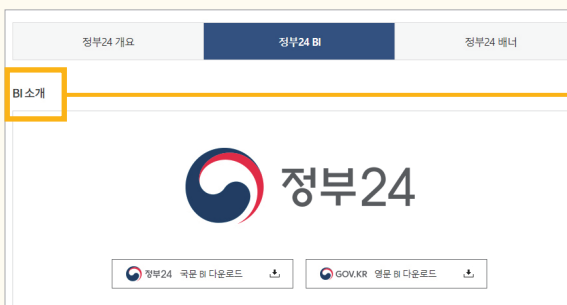
기관	기관	기관	기관
경기평택항만공사	산림청	서울특별시 송파구	포천시
경북대학교 병원	삼척시	성북구	하남시
경상북도교육청	새만금개발공사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경주시	서민금융진흥원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광해광업공단
경찰청	서울도서관	원주시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연구원	조달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김포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도군	행정안전부 정부24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



새만금개발공사 누리집



정부24 누리집

기관 누리집에 ‘쉬운 우리말 사전’ 무료로 설치하세요.

- 바꿔 써야 할 외국어 단어와 대신 쓸 수 있는 쉬운 우리말 제공
- 공개 에이피아이를 사용하거나 누리집 내 창으로 설치하여 활용



‘쉬운 우리말을 쓰자’(www.plainkorean.kr) 누리집에서는 ‘쉬운 우리말 검색’ 공개 에이피아이를 제공한다. 공공언어에서 사용하는 여러 외국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쓰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으며,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

공개 에이피아이를 활용하여 기관에서 직접 개발하는 것이 어렵다면, ‘쉬운 우리말을 쓰자’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쉬운 우리말 사전’과 ‘외국어 검사기’, ‘쉬운 우리말 도우미 (채팅 로봇)’을 기관 누리집에 그대로 불러와서 활용할 수도 있다.

공개 에이피아이를 활용하거나 쉬운 우리말 도구를 기관 누리집에서 활용하고 싶다면, 한글문화연대(urimal@urimal.org)로 문의하면 된다.

쉬운 우리말 사전

외국어 용어의 쉬운 우리말 표현 사전

키오스크

Q

전체 : 3,612건

한글

전체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로마자

전체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키오스크*

쉬운 우리말

키오스크* ➞

무인 안내기, 무인 단말기, 무인 주문기, 간이 판매대, 간이 매장

원어 표기 | kiosk

바꾸어 쓴 예문

보험료도 키오스크로 납부할 수 있다.

보험료도 무인 안내기로 납부할 수 있다.

식당, 기차역, 버스 정류장, 휴게소에도 키오스크가 대중화되고 있다.

식당, 기차역, 버스 정류장, 휴게소에도 무인 주문기가 대중화되고 있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 비접촉 키오스크를 개발해 주목을 끌고 있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 비접촉 무인 주문기를 개발해 주목을 끌고 있다.

기타 낱말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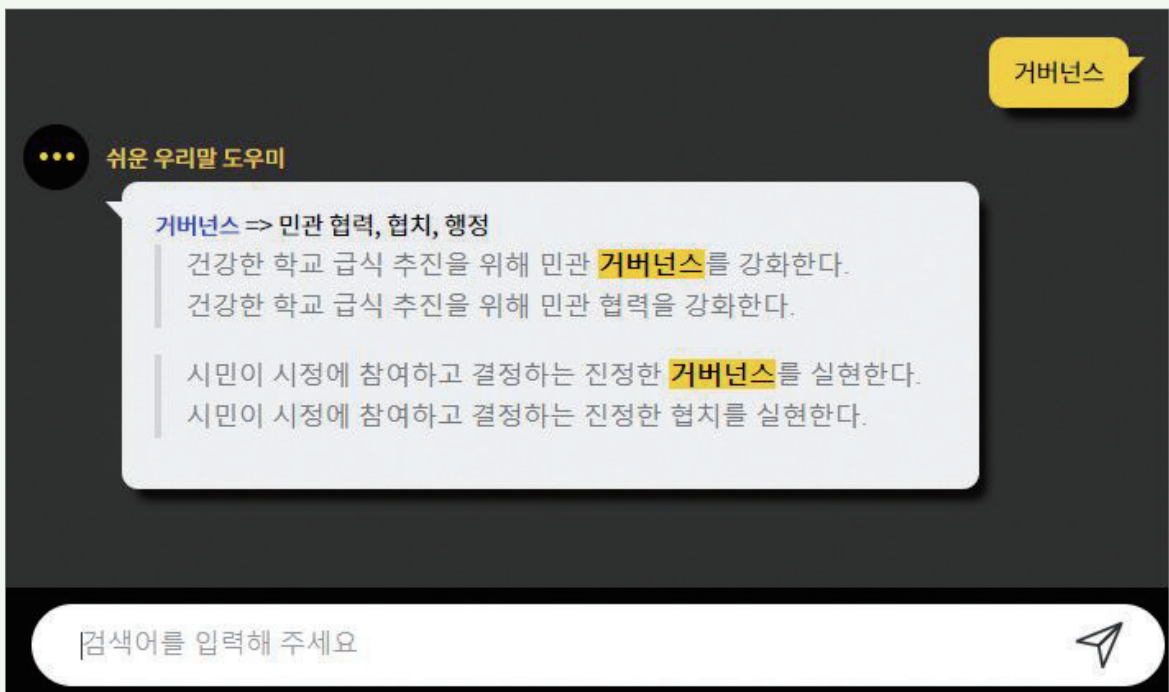
정부 보도자료 평가용 용어

쉬운 우리말 사전으로 바꿔 써야 할 외국어와 우리말 대체어를 찾을 수 있다.

42



외국어 검사기로 문장에 외국어를 남용하지 않았는지 손쉽게 검사할 수 있다.



쉬운 우리말 도우미(채팅 로봇)로 우리말 대체어와 예문을 간편하게 찾을 수 있다.

2022년에 새로 다듬은 말

문화체육관광부는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국립국어원과 함께 외국어 새말을 대체할 우리 새말을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어려운 외래 용어가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지기 전에 달마다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다듬어 제공하는 일이다. 새말모임에서 제안한 의견을 바탕으로 외국어 새말의 의미와 쓰임새 등을 검토하고 선정하여 새로 다듬은 말을 발표한다. 이 말은 일반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여론조사도 거친다.

'이에스지 경영'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

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환경·사회·투명 경영'과 같이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mcst.go.kr)의 검색창에서 '새말'을 검색하거나, 쉬운 우리말을 쓰자 누리집(plainkorean.kr)의 '쉬운말>새말' 화면에서 발표된 우리 새말을 확인할 수 있다.

※ '새말모임'이란 어려운 외래 새말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지기 전에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다듬어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국어, 언론, 통번역, 문학, 정보통신, 보건 등 여러 분야 사람들로 구성된 위원회

	대상어	원어	다듬은 말	의미
1	이에스지(ESG) 경영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經營	환경·사회·투명 경영	환경 보호와 사회적 기여도를 고려하고 법과 윤리를 준수하며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경영 철학.
2	디지털 네이티브	digital native	디지털 태생	디지털 환경에서 태어나 성장하여 디지털 기기를 자유 자재로 활용하는 세대.
3	임팩트 비즈니스	impact business	사회 가치 병행 사업	사회적 영향력을 만들어내는 동시에 경제적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4	제로 코로나	zero corona	고강도 방역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봉쇄 조치를 진행하는 등 강도 높은 규제로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는 정책. 주로 호주나 뉴질랜드, 중국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5	세이프티 콜	safety call	작업 중지 요청	현장 근로자가 위험을 인지했을 때 즉시 작업 중지를 요청하는 것.
6	코워킹 스페이스	coworking space	공유 업무 공간	여러 분야에서 독립적으로 작업하는 사람들이 모여 의견을 서로 공유하며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조성한 협업 공간.
7	아르피에이 (알피에이)	RPA: Robotics Process Automation	업무 처리 자동화	인간을 대신하여 수행할 수 있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알고리즘화하고 소프트웨어로 자동화하는 기술.
8	미코노미	meconomy ← me+economy	자기중심 소비	자기만족을 위한 소비나 지출 등의 경제 활동.

	대상어	원어	다듬은 말	의미
9	플라잉 모빌리티	flying mobility	근거리 비행 수단	하늘을 나는 이동 수단의 하나. 주로 서너 명 이하가 타며 에어 택시, 드론 택시, 개인용 비행체 등이 있다.
10	큐레이션 커머스	curation commerce	소비자 맞춤 상거래	전시 기획자가 작품을 수집, 전시, 기획하듯이 특정 분야 전문가가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하여 직접 제품을 고르고 할인한 가격에 파는 전자 상거래.
11	영 케어러	young carer	가족 돌봄 청년	장애, 질병, 약물 중독 등을 겪는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
12	펫 프렌들리	pet friendly	반려동물 친화	반려동물과 밀접하게 관련된 서비스 상품.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 상품, 호텔이나 카페, 식당 등에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해당된다.
13	클린 뷰티	clean beauty	친환경 화장품	유해 성분을 배제하고 환경 보호를 고려하여 만드는 화장품.
14	로테크	low tech	단순 기술	차원이 낮은 단순한 기술이나 기본적인 기술.
15	에이지리스	ageless	나이 무관	어떠한 선택에서 나이에 얽매이지 않는 것.
16	안테나 숍	antenna shop	탐색 매장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기 전 소비자의 선호나 반응을 파악하여 반영하기 위해 운영하는 점포.
17	컬처 핏	culture fit	조직 문화 적합성	기업의 조직 문화 또는 그 기업이 추구하는 방향과 채용 대상자와의 적합성. 주로 채용 시 지원자를 단순히 정량 평가하지 않고, 조직 구성원과의 교감, 소통, 조직과의 융화 등을 고려한다.
18	디제라티	digerati ← digital+literati	디지털 지식인	정보화 시대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지식 계층.
19	엔데믹 블루	endemic blue	일상 회복 불안	거리두기 완화로 일상에서의 제약이 느슨해지고,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남에 따라 코로나 사태로 익숙해졌던 그간의 일상이 급변하여 우울감을 느끼는 것.
20	오픈 스페이스	open space	열린 쉼터	도시 계획에서 사람들에게 놀이 활동을 하게 하거나 마음의 편안함을 줄 목적으로 마련한 공간.
21	페일콘	failcon	실패 공유 모임	창업가와 투자자 등 기업 관계자들이 모여 자신의 실패 경험을 공유하고 실패 요인과 해법 등을 논의하는 자리.
22	엔에프티	nft· 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 토큰	고유한 인식값을 부여받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특성을 지닌 블록체인상의 디지털 저장물.
23	에듀테크	edu tech ← education+technology	교육 정보 기술	교육 분야에 접목한 빅 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정보 통신 기술.
24	빅 테크	big tech	정보 기술 대기업	정보 기술 기업 중 규모가 크고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 국내 금융 산업에서는 주로 온라인 플랫폼 제공 사업을 핵심으로 하다가 금융 시장에 진출한 업체를 지칭하는 말로 쓰인다.
25	도어스테핑	doorstepping	출근길 문답, 약속 문답	집 밖이나 건물 입구 등 주로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 인물을 기다렸다가 약속으로 하는 기자 회견.

	대상어	원어	다듬은 말	의미
26	메타 패션	meta fashion	가상 세계 패션	확장 가상 세계(가상 융합 세계)에 등장하는 아바타의 피부, 옷, 신발, 장신구 등을 아우르는 디지털 패션. 질감, 색감 등의 제약으로 현실에서 볼 수 없거나 구현이 어려운 것도 디지털 이미지 또는 동영상으로 구현할 수 있다.
27	로컬 소싱	local sourcing	현지 조달	상품을 제작하거나 생산할 때 국내에서 만들어진 물자를 활용하는 전략.
28	베이비 스텝	baby step	소폭 조정	한 나라의 금융과 통화 정책의 주체가 되는 중앙은행이 기준 금리를 0.25% 인상 또는 인하하는 것.
29	빅 스텝	big step	대폭 조정	한 나라의 금융과 통화 정책의 주체가 되는 중앙은행이 기준 금리를 0.5% 인상 또는 인하하는 것.
30	자이언트 스텝	giant step	광폭 조정	한 나라의 금융과 통화 정책의 주체가 되는 중앙은행이 기준 금리를 0.75% 인상 또는 인하하는 것.
31	네버 코비드	never COVID19	코로나 비감염	코로나19에 한 번도 걸리지 않음, 또는 그런 사람.
32	트래블 룰	travel rule	송금 정보 기록제	온라인에서 가상 자산이나 자금을 주고받을 때 자금 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주고받는 사람의 정보를 기록하도록 하는 원칙.
33	뉴 스페이스	new space	민간 우주 개발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 개발을 이르는 말로 정부가 주도하는 우주 개발인 '올드 스페이스(old space)'와 대비된다.
34	그루밍 성범죄	grooming 性犯罪	환심형 성범죄	피해자의 관심을 공유하거나 피해자가 원하는 것을 제공하면서 신뢰를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행하는 성범죄.
35	노마드 워커	nomad worker	유목민형 노동자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에 제약되지 않고 자유롭게 일하는 사람.
36	스태그플레이션	stagflation	고물가 경기 침체	경기 불황 중에도 물가가 계속 오르는 현상.
37	디지털 트윈	digital twin	가상 모형	가상 공간에 실물과 똑같이 만든 물체, 또는 그러한 것을 만드는 기술. 실물 대신 시험 대상으로 활용하여 미리 여러 가지를 검증하는 데 이용된다.
38	페이스 리프트	face lift	외관 개선	주로 자동차에서 외관이 일부 변경되고 선택 사항이 추가됨으로써 기존 모델과 달라지는 일.
39	마이크로투어리즘	microtourism	근거리 여행	자신의 근거지와 가까운 지역을 여행하는 것.
40	듀얼 라이프	dual life	두 지역살이	도시와 지방에 주거지를 마련하여 두 곳을 오가며 생활하는 것.
41	멀티데믹	multi pandemic	감염병 복합 유행	여러 가지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것.
42	커리어 하이	career high	최고 기록	주로 운동에서 선수가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는 것을 이르는 말. 가수 등 연예인의 활동 성과에도 쓰인다.
43	헤드라이너	headliner	대표 출연자	행사나 공연 등에서 가장 기대되거나 주목받는 출연자. 또는 그 무리.

	대상어	원어	다듬은 말	의미
44	아쿠아스케이프	aquascape	수생 조경	관상어, 수초 등을 활용해 수조를 실제 바다처럼 재현한 것.
45	피크 아웃	peak out	하락 전환	경기나 주식이 고점을 찍고 하락 국면에 접어드는 상황.
46	오리지널 콘텐츠	original contents	자체 제작물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오티티)나 전자책 플랫폼 등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공개하는 콘텐츠.

새로 다듬은 말

아쿠아스케이프
(aquascape)

↓

수생 조경

관상어, 수초 등을 활용해 수조를
실제 바다처럼 재현한 것.

새로 다듬은 말

헤드라이너
(headliner)

↓

대표 출연자

행사나 공연 등에서 가장 기대되거나
주목받는 출연자. 또는 그 무리.

새로 다듬은 말

피크 아웃
(peak out)

↓

하락 전환

경기나 주식이 고점을 찍고
하락 국면에 접어드는 상황.

새로 다듬은 말

오리지널 콘텐츠
(original contents)

↓

자체 제작물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오티티)나
전자책 플랫폼 등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공개하는 콘텐츠.

2022년에 꼭 바꿔 써야 할 말 5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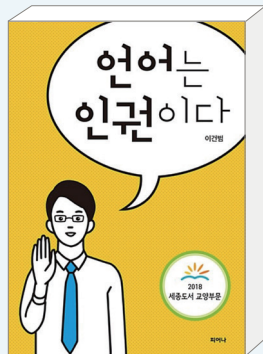
	대상어	원어	다듬은 말	예문
1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 지능	유초중고에 AI → 인공 지능 과목을 신설해 2025년부터 본격화한다.
2	AI	Avian Influenza	조류 인플루엔자	정부가 겨울 철새 이동을 앞두고 AI → 조류 인플루엔자 차단 대비에 나섰다.
3	ASF	African Swine Fever	아프리카 돼지 열병	ASF →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확산 차단으로 돼지고기 수급에는 영향이 없다.
4	BRT	Bus Rapid Transit	간선 급행 버스 (체계)	세종시 내부를 순환하는 BRT → 간선 급행 버스 도로가 조성돼 굴절버스가 다닌다.
5	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사회 가치 경영, 환경·사회·투명 경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ESG → 사회 가치 경영 이 부각되고 있다.
6	FTA	Free Trade Agreement	자유 무역 협정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중미 5개국과 FTA → 자유 무역 협정 을 체결했다.
7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제약 업계에서 의약품 GMP →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위반 사례가 연이어 나왔다.
8	HACCP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이달부터 햄·베이컨에도 HACCP →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이 적용된다.
9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정보 통신 기술	청년들의 열정과 첨단 ICT → 정보 통신 기술 로 농촌이 바뀌어간다.
10	IoT	Internet of Things	사물 인터넷	돌봄과 IoT → 사물 인터넷 기술을 결합한 디지털 돌봄 사업을 추진한다.
11	IP	Intellectual Property	지적 재산, 지식 재산(권)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IP → 지적 재산 분쟁 대응을 돕는다.
12	IR	Investor Relations	기업 투자 설명회	신산업 증가에 따라 IR → 기업 투자 설명회 전문가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13	IT	Information Technologies	정보 기술	르네상스 걸작과 IT → 정보 기술 의 만남, ‘신의 예술가, 미켈란젤로전’이 열린다.
14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업무 협정, 업무 협약, 양해 각서	세계녹색성장기구는 기획재정부와 MOU → 업무 협약 을 맺었다.
15	n차 감염	n次 感染	연쇄 감염, 연속 감염	연휴 뒤 무증상 감염자들에 의한 n차감염 → 연쇄 감염 확산이 우려된다.
16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 개발 원조	의료 취약국을 위해 보건 의료 분야의 ODA → 공적 개발 원조 도 계속 확대한다.
17	OTT	Over The Top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OTT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상위 6개 업체를 대상으로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했다.
18	PM	Personal Mobility	개인형 이동장치, 개인형 이동수단, 1인 전동차	이륜차 및 PM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제도 정비 등 교통 안전을 강화한다.
19	R&D	Research & Development	연구 개발	감염병특별위원회가 국가 감염병 R&D → 연구 개발 추진 체계를 고도화한다.
20	SNS	Social Network Service	누리 소통망, 사회 관계망	SNS → 사회 관계망 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교환이나 환불이 어려울 수 있다.
21	SOC	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 기반 시설, 사회 간접 자본	SOC → 사회 기반 시설 의 핵심인 신공항 건설로 경제를 살린다.
22	TF	Task Force	전담반, 전담 조직, 특별 팀	아동 학대 처벌 강화를 위한 TF → 전담반 을 구성해 양형기준을 검토한다.

	대상어	원어	다듬은 말	예문
23	UAM	Urban Air Mobility	도심 항공 교통	인천시가 UAM → 도심 항공 교통 특화 도시로 한발 더 나아갈 전망이다.
24	VR	Virtual Reality	가상 현실	게임하듯 VR → 가상 현실 로 실습하고 확장 수업한다
25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	코로나 시대, WHO → 세계보건기구 가 제안한 새로운 지침을 알아본다.
26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호주가 중국의 관세 폭탄에 강력 반발해 WTO →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시사했다.
27	가이드라인	Guideline	지침, 기준, 방침	상한제 맞춰 '분양가 심사 카이드라인 → 지침 ' 손본다.
28	거버넌스	Governance	민관 협력, 협치	커버넌스 → 민관 협력 을 통한 마을 만들기과 발전 방안
29	디지털트윈	Digital Twin	디지털 복제, 디지털 복제물	디지털트윈 → 디지털 복제 로 가상 공간에 우리 국토를 구현해 모의실험을 할 수 있다.
30	라이브 커머스	Live Commerce	실시간 방송 판매	소상공인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 → 실시간 방송 판매 를 진행한다.
31	로드맵	Road map	이행안, 단계별 이행안, 일정 계획	미래 조선 산업 발전을 위해 로드맵 → 단계별 이행안 을 마련한다.
32	로컬푸드	Local food	지역 먹거리, 지역 먹을거리, 향토 먹을거리	공공 기관 급식에 로컬푸드 → 지역 먹거리를 공급하고 있다.
33	리스크	Risk	위험, 손해 우려	이 작업은 리스크 → 위험 이 너무 크다.
34	매뉴얼	Manual	설명서, 지침, 지침서, 안내서	잘 모르겠으면 매뉴얼 → 설명서 를 참고하십시오.
35	메타버스	Metaverse	확장 가상 세계, 가상 융합 세계	전자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메타버스 → 확장 가상 세계 에 대한 관심이 높다.
36	모빌리티	Mobility	이동 수단, 탈 것	더 다양하고 편리한 모빌리티 → 이동 수단 서비스가 일상화된다.
37	바우처	Voucher	이용권	저소득층 8000명에게 연 35만 원의 '평생 교육 바우처 → 이용권 '을 지원한다.
38	비즈니스 모델	Business Model	사업 모형	지속 가능한 도시 재생 비즈니스모델 → 사업 모형 을 발굴한다.
39	세션	Session	분과, 부, 시간	학술 대회는 일반 논문 세션 → 분과 와 대학원생 우수 논문 발표 세션 → 분과 로 진행된다.
40	셧다운	Shut down	중단, 활동 정지, 일시 휴업	김해공항 국제선은 셧다운 → 일시 휴업 으로 입출국이 전면 중단된 바 있다.
41	스쿨존	School Zone	어린이 보호 구역	초등생 등교 앞두고 전국 스쿨존 → 어린이 보호 구역 1만 6,912곳을 전수 점검한다.
42	시너지	Synergy	상승, 상승 효과, 동반 상승, 동반 상승 효과	3개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하여 시너지 → 동반 상승 효과를 낼 전망이다.
43	싱크홀	Sink Hole	땅꺼짐, 꺼진 구멍, 함몰 구멍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에서 싱크홀 → 땅꺼짐 이 발생하여 차량 통행을 통제했다.
44	아카이브	Archive	자료 보관소, 기록 보관소	항만 개발 등 해양 역사를 아카이브 → 기록 보관소 로 구축한다.
45	언택트	Non-contacted	비대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언택트 → 비대면 으로 주문할 수 있다.
46	원스톱	One-stop	일괄, 통합	이제는 집에서 민원 신청부터 처리까지 원스톱 → 일괄 로 처리가 가능하다.
47	이커머스	E-commerce	전자 상거래	이커머스 → 전자 상거래 시장은 날이 갈수록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48	인센티브	Incentive	성과급, 유인책, 특전, 혜택, 장려 혜택	수도권 거주 인구와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 혜택 을 강화한다.
49	인프라	Infrastructure	기반, 기반 시설	국가유공자를 위한 의료·복지 인프라 → 기반 을 확충하고 지원도 강화한다.
50	챌린지	Challenge	① 참여 잇기, 도전 잇기 ② 공모전, 대회, 경진 대회	시는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 → 참여 잇기 에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우리 말글 교육, 국어 관련 상담, 공공문장 감수 등 공공언어 사용에 도움받을 수 있는 곳들을 소개합니다.

이름	전화번호	소재지
국립국어원	1599-9979	서울
강원대학교 국어문화원	033-250-8137	춘천
경북대학교 국어문화원	053-950-7497~8	대구
경상대학교 국어문화원	055-772-0768	진주
고려대학교 세종 국어문화원	044-860-1910	세종
동아대학교 국어문화원	051-200-7179~7180	부산
목포대학교 국어문화원	061-450-6271	무안
상명대학교 국어문화원	041-550-5391	천안
세종 국어문화원	02-735-0991	서울
안양대학교 국어문화원	031-467-0861	안양
영남대학교 국어문화원	053-810-3561, 3628	경산
울산대학교 국어문화원	052-259-1911	울산
이화여자대학교 국어문화원	02-3277-3250	서울
인하대학교 국어문화원	032-860-8394	인천
전남대학교 국어문화원	062-530-0313	광주
전주대학교 국어문화원	063-220-3095	전주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064-754-2712, 2738	제주
청주대학교 국어문화원	043-229-8311	청주
충북대학교 국어문화원	043-261-3450	청주
한국방송 국어문화원	02-781-3838	서울
한글문화연대 국어문화원	02-780-5084	서울
한남대학교 국어문화원	042-629-7474	대전
한양대학교 국어문화원	031-400-4513	안산
국어문화원연합회	02-2669-9605	서울

우리 말글 상식, 글쓰기, 공공언어 등을 더 자세히 알고 싶을 때 도움이 되는 책들을 소개합니다.



언어는 인권이다

피어나 | 16,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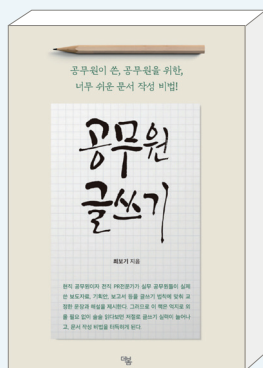
우리 시대에 언어를 바라보는 시각과 태도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책. 국어운동 중심에 섰던 저자는 언어가 단순히 소통의 도구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을 실현하는 연장임을 강조한다. 공공언어를 다루는 공무원, 언론인, 교육자, 사회지도층, 민주시민을 위한 필독서다.



공공언어의 사회철학

피어나 | 25,000원

국민의 안전과 재산, 권리와 의무, 기회와 위험 등을 다루는 공적 정보가 담긴 말, 즉 공공언어가 어떤 사회철학 위에서 쓰이면 공공성이 높아지고 공동선에 다가갈 수 있는지 살펴본다.



공무원 글쓰기

더봄 | 18,000원

현직 공무원이자 유명 북칼럼니스트 최보기 작가가 공무원들이 주로 쓰는 보고서의 단문 및 장문(공지, 보도 자료, 인사말, 연설문, 기고문, SNS)을 간결·명료하게 쓰는 문장비결을 담은 《공무원 글쓰기》를 펴냈다. 일선 공무원들이 쓴 원문과 저자의 교정문, 해설을 붙였다.



알고 보니 한글은 한국어가 아니래

한국인이 꼭 알아야 할 우리말글 알짜 지식 30

한글문화연대 | 비매품/무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거나 알아두면 유용한 우리말글 상식 30가지를 담았다. (한글문화연대 urimal@urimal.org로 신청하시면 한정된 수량 안에서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배송비 선불)



쉬운우리말쓰자

<https://plainkorean.kr>

한글문화연대

<https://www.urimal.org>



9 772951 011008 2 4

ISSN 2951-0112 (24)